울산시, 전문가 120여명과 친환경 수소트램 운영방안 모색

친환경 수소트램 기술 학술 토론회
정책·운영·신호 분야 등 논의
한국기술사회와 협력 유지 박차

울산시청. /울산시

울산시는 5일 '2025년 친환경 울산 수소트램 기술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산 도시발전과 수소트램이라는 정책·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 토론회는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등이 후원하고,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국기술사회 장덕배 회장 및 임원,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명예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와 울산시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 토론회는 울산시 친환경 수소트램과 관련된 정책, 운영, 신호분야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 토론자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정책 분야는 '울산 도시발전과 트램'이라는 주제로 울산연구원의 정현욱 박사 ▲운영 분야는 '트램운영의 효율화 사례와 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교통대학교 김현 교수 ▲신호 분야는 '한국형 트램신호체계의 개발 및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에이알텍 이수환 부사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전문가 토론자 토론에는 김재권 아시아친환경자원협회 회장, 이선하 공주대 교수, 황종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상중 부산기술사회 회장, 김가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규판 울산시 트램교통과장이 참석해 정책 제안을 했다.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은 "울산 수소트램 운영 방안과 기술 혁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과학 기술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가 참여해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국내 트램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울산 친환경 수소트램과 관련한 기술 소개 및 공감을 위해 한국기술사회와 공동으로 학술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친환경 수소트램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이번 학술 토론회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한층 진보한 기술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가 체결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및 주요 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의 하나로 추진됐다.

울산시와 한국기술사회는 이번 학술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울산시 현안 사업에 대해 꾸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 첫 최고액 탄생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한도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해남군 첫 최고액 기탁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이레가축약품 황은선 대표이사로, 지난 3일 해남군청을 찾아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황은선 이사는 배우자인 해남 현산면 출신 김영국 대표와 함께 2017년부터 나주에서 가축약품회사인 ㈜이레가축약품을 운영중이다. ㈜이레가축약품은 전남 동물용 의약품 공급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회사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양산시
전기·수소車 보급사업 추진

양산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친환경 수송부문 촉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급 예정인 전기자동차는 승용 800대, 화물 200대, 승합 22, 어린이통학 차량 2대, 이륜 38대이며 수소자동차는 승용 60대, 승합 7대로 총 1129대이다. 시는 1차로 오는 6일부터 전기승용 600대, 전기화물 140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 수소승용 60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물량은 오는 7월에 보급할 예정이며 올해 총 176억원이 투입된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여수시
10억 규모 신규 한류행사 연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문체부 주관 '2025년 대형 한류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 총 10억 원 규모의 신규 한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류 행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초대형 한류 축제와 연계해 여수, 부산, 경주, 천안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될 전망이다.

여수시가 공모한 'Beyond K Festa in 여수(비욘드 케이 페스타 인 여수)'는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유의 관광자원을 한류 콘텐츠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통영시
올해 학교급식비 95억 지원

통영시는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5.4% 인상해 관내 38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만3000여명에게 학교급식비 9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도 시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으로 91억원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지원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지원단가 인상과 함께 우수하고 안전한 도내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우선 사용해 급식 질을 높인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40억 지원

경남은행과 각 10억씩 출연
전년 상반기比 140억 확대
재원 2.5% 이자, 1년간 지원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일 시 접견실에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번 협약식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창원특례시와 경남은행이 각 10억원씩을 출연해 총 240억원의 융자규모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전년 상반기 대비 140억원이 확대 지원된다.

시는 출연금 외에도 보증 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고, 경남은행은 대출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기존 경남도 자금을 받았더라도 최대 5000만원 안에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신청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갖고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영양군 희망2025나눔캠페인.

영양군, 희망나눔캠페인 2.5억 성금 모금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영양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통해 총 2억 52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양군이 역대 최대 모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정신이 빛을 발한 결과로 평가된다.

캠페인 초기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성금 모금이 우려됐지만,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군민들의 나눔 참여 열기 덕분에 역대 최고 모금액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종료됐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확대

대상지 175곳 → 196곳으로 확대

경남도는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11개 시군 26개소에 도비 499억원을 포함해 587억원을 투입해 수량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급수 취약지역에 108.8㎞ 배수관로를 매설하고, 21개소에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한다.

또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의 지방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 대상지를 기존 175개 면 지역에서 196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급수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은 그간 지하수나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수량 부족 등 급수 불안정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사업 범위를 읍면 지역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을 통해 경남도는 상수도 보급률을 대폭 증가하고, 급수 불안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올해 신규공무원 364명 채용

전년 대비 151명 늘어난 규모

대구시는 2025년도 신규공무원 채용 규모를 364명으로 확정하고 직급별 선발 인원, 시험 일정, 시험 제도 변경 사항 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채용 인원은 5급 1명(일반의무), 7급 12명(일반행정 2명, 수의 10명), 9급 335명(일반행정 및 시설 등), 연구·지도직 16명 등 25개 직류에서 총 364명이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151명(58%) 증가한 것으로,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주요 시정 과제를 추진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가 모든 임용시험에 적용되며, 전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 일정,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제도 변경 사항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내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혁신 100+1' 과제를 완수하고 선진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